

##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이제 새 안경을 맞출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 몇 달만 해도 글을 쓰거나 페이스북에 코멘트를 써놓고는 글을 게시하기 전에 몇 번이나 더 읽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썼는데도 그 글이 제 생각대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우리가 인식하는 실재를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가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육안"으로 본 대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사진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림 같다고 기억하는 장면들이 사진으로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저는 늘 놀랍니다.

그와 같은 종류의 영향력은 주변의 세상에 대해 어떤 이해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시각-또는 보도-에도 작용합니다. 생각이라는 강력한 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사실을 용인된 틀에 맞추는" 식의 일은 우리가 빠져있는 미디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역선교사인 그레이스 무수카(Grace Musuka)와 함께 있었던 지난 3월에 짐바브웨 신문에는 "여성들은 맹목적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는 짐바브웨의 새 헌법을 위한 투표를 한 여러 여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투표는 했지만, 그 헌법의 조항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새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 정부의 대표와 대통령 권한의 제한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했던 여성들은 새로운 헌법의 상세한 내용을 말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기자는 여성들이 "맹목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우리의 관점이 갖는 힘의 또 다른 예로는 오하이오 주 스투벤빌(Steubenville)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의 유죄 판결에 관한 보도입니다. 보도의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아니라, 범죄자의 형량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컬럼을 쓰고 있는 오늘 날짜의 뉴욕타임즈지는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로켓 과학자 이본 브릴(Yvonne Brill)의 부고를 실고 있습니다. 그 서두는 “그녀는 맛있는 비프 스트로가노프를 만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그 신문사는 독자들의 비난을 받고서야 기사의 서두를 바꾸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으로써, 미디어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기자나 방송국 또는 케이블 채널의 관점이 뉴스 보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는 일정한 틀을 형성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등에 전제를 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일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위해 살피고, 질문하고 또 길을 만들어 봅시다. 이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줄 또 다른 유형의 “시력 교정”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보는 바른 틀을 형성하는 데 우리 몫을 다할 때까지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 헤리엇 올슨